

“불자들 환경에 관심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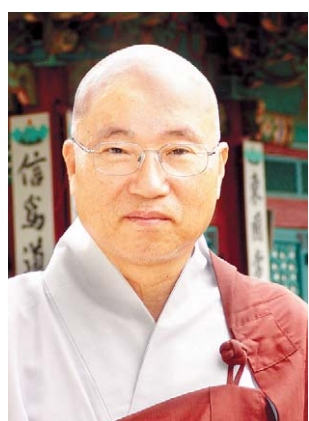
법산 스님, 불자 생태문화 의식 조사연구 결과 발표

불교계가 2001년과 2004년 각 사색산 터널과 천성산 터널 공사를 반대했던 것을 비롯해, 한반도 대운하 등 환경생태와 관련한 사안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것은 불자들의 날다른 환경생태에 관한 관심 때문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이 보고서는 법산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사진)이 <보조사상> 제31집에서 ‘불교인의 생태문화 의식 조사연구’를 통해 발표된 것.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사업비 지원을 받아 2007년 3~5월 2개월간 500매의 설문지를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각 종교인을 대상으로 △환경생태문제에 대한 관심 △재개발·재건축 등 △자연친화 품성도 등을 조사했다.

논문에 따르면, 설문결과를 평균적으로 환산한 결과 불자들의 환경생태에 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교 3.76 가톨릭 3.55 개신교 3.24로 환경생태문제에 관한 조사에서 불자들의 관심도 수치가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법산 스님은 “산중 사찰에서 생태적 삶을 영위하던 불교인들이 지역 개발로 인해 갈등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풀이



법산 스님

했다. 대기 및 수질 오염 등에 관해서는 가톨릭이 4.34, 개신교가 4.16 불교가 4.02였다.

스님은 “오염에 대한 불자들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스님들이 산중 사찰에서 영위하는 수도생활의 영향이 크다. 불자들 역시(사찰을 찾아) 청정한 곳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 다른 종교신자보다 오염 체감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연친화 품성도 조사에서 불자들이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복의 대상이 아닌 인격도야의 대상으로 동반해야 한다는 성향을 띤 것과도 관계가 있다.

자연에 대한 두려움 및 혐오감을 묻는 질문에서 개신교가 2.29

가톨릭이 2.05 불교가 1.94의 반응을 보였다. 스님은 “사람에서는 산신이나 칠성, 용왕 등 환경신(環境神)을 모시거나 예경해왔다”며 “자연친화를 넘어 자연 섬김으로 이어진 불교인들의 인식은 자연을 공존의 동반자로 여기는 것”이라 분석했다.

연구조사는 환경문제 해결과 환경범죄 처벌에 있어서는 타종교인들은 명령에 의한 강제조정과 중대한 범죄로 처벌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오염의 책임소재를 묻는 질문에 타종교인들은 정부 등 기업을 지목한데 비해 불자들은 자신에게 귀결시키는 성향을 보였다.

특히 불자들은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처벌보다는 설득을, 타율적 강제보다는 스스로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나 불교적 가르침이 사회갈등 해법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기도 했다.

법산 스님은 “종교인들의 자연에 대한 인식은 신자들에게 투영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환경이 갖는 내재적 가치를 인정해 종교별 환경단체들을 네트워크로 유기화하는 범종교적이고 범세계적인 환경운동을 펼쳐자”고 제안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강원도에 단비를...”

극심한 가뭄 겪는 태백·정선, 불교계 도움 잇따라

최악의 가뭄으로 먹을 물조차 부족한 태백·정선지역에 불교계 도움이 잇따르고 있다.

평장 월정사(주지 정념) 등 조계종 제4교구는 3월 22일 ‘물의 날’을 맞아 정선 정암사에서 ‘강원지역 가뭄극복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본사 월정사 뿐만 아니라, 구룡사, 관음사, 삼화사, 법흥사 등 말사에서 참가한 스님과 신도, 도단위 기관단체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해 강원 불교계의 가뭄극복을 위한 원력을 담아냈다.

법회 중 헌다에 이어 진행된 기우

의식에서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해 강기창 도행정부지사와 이준연 도의회부의장, 박종기 태백시장, 유창식 정선군수 등이 물을 부으며 비를 간절히 소망했다. 이어 정암사 주지 정광 스님의 불행사와 정념 스님의 법어 등이 진행됐다.

정념 스님은 법어를 통해 “중생들과 더불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 법회를 마련했다.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불교계는 물론 관련단체들과 합심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태백시와 정선군에 각각 1,000만원의 성금이 전달됐으며, 정암사에 ‘강원도 가뭄재해 불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3월 22일 정선 정암사에서 가뭄극복을 위한 기원대법회 봉행 후 태백시와 정선군 관계자에게 각 1000만원 성금을 전달했다.

교대책본부’도 마련됐다.

한편, 국제구호단체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태백지역 ‘희망의 생수 보내기’ 운동을 벌여 3월 26일 태백시청과 정선군청을 방문해 생수

3만병을 전달했고, 천태종복지재단과 태백 등광사도 3월 11일 태백 시청에 생수 1만병으로 도움을 손길을 보냈다.

조동섭·노덕현 기자

불교계와 환경단체들 “우이령 개방 반대”

탐방로 지정 철회하는 반대설명서 발표

40년 만에 길이 열리는 서울의 DMZ 북한산 우이령길 개방을 앞두고 양주시가 자동차도로를 추진해 지역 불교계와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봉선사, 양주 석굴암산도회, 양주 사암련, 의정부사암련, 불교환경연대, 우이령탐방로도로개설반대위원회 등은 3월 19일 탐방로 지정을 철회하는 반대설명서를 발표하고, 환경부에 항의공문을 발송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의 DMZ로 불리는 우이령 개방은 겨우 되살아난 강산에 다시 상처를 내는 큰 오류”라며 “양주시는 단지 일부 주민의 서울접근성을 내세워 포장도로개설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어 “인간의 필요로 우

리 자연을 모두 개발 할 수는 없다. 의상 대사가 창건하고 나온 화상 기도처였던 석굴암의 사부대중은 생명존중사상으로 우이령을 지키고자 한다”며 △국립공원인 우이령은 국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이다 △우이령 탐방로 지정개방을 절대반대한다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은 우이령길 보존에 적극 나서라 △우이령을 자연보존지구로 보존하라 △우이령과 가장 밀접한 석굴암을 배제한 합의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1·21 사태 당시 김신조 무장집사건 이후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됐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3월 20일 탐방로 현장실사에 이어 3월 31일 회의를 열고, 탐방로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만이 근본해결책”

종자연, 종교투표소 법적 근거 마련 촉구

중앙선관위의 종교투표소 폐지 방침에 종자연이 환경의사를 밝히며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은 3월 20일 논평을 통해 “이번 중앙선관위의 종교시설 투표소 비설치 입장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그러나 이번 결정이 기본권 및 인권을 생각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논란의 소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대로라면 언제 다시

종교시설 내 투표소를 설치 할 수 있다. 현재판결과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 국회통과를 조속 처리해 이런 의지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종자연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해 심리 중인 상태다.

또 종교자유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 등에 진정을 통해 ‘종교시설내 투표소 설치 금지’를 권고토록 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서불대 이사회는 수습대책기구 구성하라”

교단자정센터 등, 25일 서불대 정문서 기자회견 개최

3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서울 불교대학원대학(이사장 지옥, 이하 서불대)에 대한 결과적분 조치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교과부 요구에도 학교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단자정센터(대표 김희욱)와 서불대 학생회(회장 황성욱)가 3월 25일 서불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잇따라 개최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이사회를 비롯한 서불대 주체들은 법적 소송 대응이 아닌 합의를 통해 현재의 갈등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현 이사회는 교육부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중립적인 수습대책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서불대 학생회는 이사회의 용역고용에 의한 교수 및 학생의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용역 철폐를 주장했다.

학생회는 “이사장 지옥 스님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임원승인 취소 처분 결정 후에도 학교측이 동원한 용역직원의 위협과 조롱이 비일

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용역들이 학생들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봉순 총장대행은 “학생회 등이 말하는 용역은 서불대가 경비직원으로 정식 채용한 경비직원”이라며 “2월 28일 재계약이 만료된 전 교수 2인과 해임된 직원 2인이 학교를 출입하며 수업과 업무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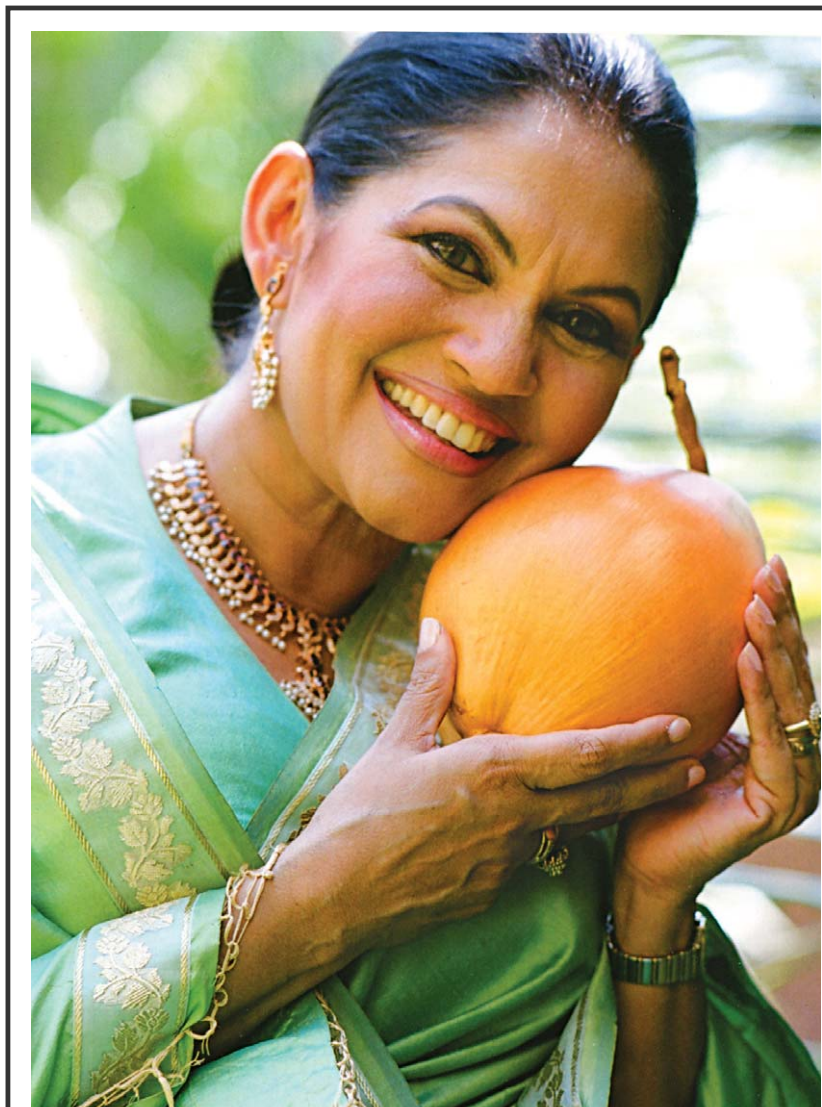
정부 국가인권위 축소에 불교계 연대성명

MB정부의 국가인권위 축소방침에 불교 각 단체들이 일제히 반대대목 소리를 높였다.

법불교대책위원회, 실천승가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여불교재가연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경련 등 15개 불교계 단체들은 2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부족한 인권의식에 일침을 가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국가인권위는 사회 곳곳의 부조리와 차별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의 축소는 한국인권사의 퇴보가 아닐 수 없다”며 “불교계는 정부는 국가인권위 축소 방침을 철회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신생아 ★오행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오복이 오네★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작명

내가 내 이름 뜻도 모른다면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이름만 알려주어도 신비한 오행비법으로 건강, 적성, 재물, 미래운세 등 정확하게 무료상담하여 드립니다.

이름을 잘 지어주면은
자식이 효도하고 어버이가 즐거우네 (子孝雙親樂)
집안이 화목하고 만사가 이루어지네 (家和萬事成)

이름은 평생 같이할 동반자요
잘못 만나면 고생이요 잘 만나면 행복이요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맑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거나!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0년 작명
공인 한자 1급 3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 02)738-5577
* 작 명 : 국, 내외 우편발송 *

서울특별시 중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빌딩 201호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역)
한국민속철학연구소 소장 방 필 석

운명을 바꾸는 아호, 개명
주역 개인지도
방필석 대외활동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前 श्री랑카 대통령 초청 방문
前 श्री랑카 문화부 장관 초청 방문
•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前 श्री랑카 수상 서울 보명사 참배
前 श्री랑카 수상과 함께 청와대 초청방문
現 한, श्री랑카 문화교류협의회
• 제14차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표
스्री랑카 킬롬보대회 참석
• 제20차 세계불교우의회 한국대표
호주 시드니대회 참석
• 세계불교승가회 대만 제오계 대회
한국대표단 홍보차 참석
• 일본 비구중 국제평화광도대회 참석
• 인도 녹야원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
現 서울 보명사 주역강의 강사
前 세계불교도 우의회 홍보차장
現 한국역리학회 중앙학술위원
現 한국민속철학연구소장

* 매주 토, 일요일
무료 인생 상담

前 세계 "미세스 진, 현지 방필석 촬영